



거장, 부활하다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쇼스타코비치 탄생 100주년,
사무엘 베케트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김동준 · 파리 거주 음악평론가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모차르트의 작품을 지휘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한 작곡가에 게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그의 작품을 많이 연주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모차르트도 예외는 아니다. 더 많이 연주할수록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갈수록 모차르트는 더 멀어져 가고, 그는 더욱 신비로워진다. 그러나 이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차르트의 작품을 많이 연주한 한 지휘자의 말처럼 모차르트의 작품을 많이 연주할수록, 오히려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신비롭게 느낄 뿐이다. 파리와 프랑스에서 모차르트와 관련된 음악회와 행사를 우선 소개한다.

페터 쉐퍼의 「아마테우스」가 파리 극장에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무대에 올려졌고, 현재는 스위스와 프랑스의 낭트 등에서 순회공연이 열리고 있다. 12월과 1월 초에 걸쳐 모차르트 관련해서 프랑스에서 열린 음악회로는 제프리 테이트가 모차르트를 프로그램으로 하여 파리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연주회가 지난 12월 7일에 살 가보에서 열렸었다. 「마적」의 연주회용 버전이 스피노지의 지휘로 상젤리제 극장에서 지난 2월 8~9일 이틀간 열렸다. 한편 랭스에서는 「마적」이 1월 3일까

지 랭스 대극장에서 상연되었다.

1월 12일에는 리카르토 무티가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여 교향곡 38번 등을 상젤리제 극장에서 연주했고, 모차르트 전문 오케스트라로 확고한 인정을 받은 파리 앙상블 오케스트라의 2006년 일정은 어느 때 보다 더 기대가 되는데, 1월 10일에 상젤리제 극장에서 상임 지휘자이자 음악감독인 존 넬슨의 지휘로 모차르트를 프로그램을 하는 연주회가 열린 것을 시작으로, 만하임 오케스트라를 모델로 하는 이 오케스트라는 매우 뛰어난 완성도의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줄 것이다. 지난 1월 28일에는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잉글리쉬 바로크 솔로이스츠가 모차르트의 후기 교향곡 3곡을 연주했다.

오페라 「돈 조바니」가 1월 30일에서 2월 25일까지 오페라 팔레 가르니에에서 상연될 예정인데, 특히 이번 시즌의 「돈 조바니」는 현대적인 무대연출을 오페라 바스티유가 아닌 팔레 가르니에에서 선보인다는 점에서 다소 파격적이기도 하다.

1월과 2월에는 모차르트의 레퀴엠 연주회가 적지 않다. 그의 탄생일인 1월 27일에는 아마 세계 여러 곳에서 동시에 모차르트의 레퀴엠이 연주되었을 것 같다. 지난 1월 7일과 10일에 모가도 극장과 살 가보에서 레퀴엠 연주회가 있었다. 26일에는 프랑스 리용 오페라 극장에서 레퀴엠 연주회가 있었다. 피아노 포르테 연주자이자 진지한 피아노 포르테 수집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 반 임머질이 원전악기로 들려주는 모차르트 연주회도 눈길을 끈다.

3월에는 스트라스부르호에서 오페라 「돈 조바니」가 3~11일까지 상연된다.

파리의 팔레 가르니에에서는 「피가로의 결혼」이 3월 11일에서 4월 4일까지 상연된다. 캥에서는 「마술피리」가 3월 24~28일까지 상연된다. 4월에는 리용 오페라 극장에서 「코지 판 투테」가 윌리엄 크리스티의 지휘로 8~28일까지 상연된다.

19일에는 상젤리제 극장에서 비엔나 앙상블의 연주회가 예정되어 있다. 「티 투스의 자비」가 캥에서 5월 30일에서 6월 1일까지 상연될 예정이다.

5월 9일에는 필립 헤레베헤가 지휘하는 상젤리제 오케스트라가 모차르트의 후기 교향곡 3곡의 연주회가 예정되어 있다.

6월 14일에는 상젤리제 극장에서 하이팅크가 지휘하는 비엔나 필하모닉이 모차르트를 프로그램으로 하는 연주회가 예정되어 있고, 피아니스트 미셸 달

팔레 가르니에의 파리 오페라에서 상연 중인 모차르트의 「돈 조바니」

Eric Mahoudeau, Opera national de Paris



유럽 음악계는 사실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으로 온통 떠들썩하다. 사람들도 모차르트의 분위기에 완전히 휩싸여 있다. 예를 들어 파리 시내에 위치한 음악전문도서관의 음반 대여 코너에 모차르트의 음반들은 거의 항상 대출 중이다. 그리고 올해 초 프랑스에서는 모차르트의 전곡을 박스로 포장한 90유로 전집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 전집은 날개 달린 것처럼 팔려나가고 있다. 몇 년 전 ‘모차르트 이펙트’의 효과일 런지도 모른다. 마치 아인슈타인이 인류 역사상 가장 지적인 상징물이 된 이후에 그의 웃는 얼굴은 수없이 많은 광고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결 속에서 사람들이 모차르트의 음악을 조금 더 듣고, 모차르트를 조금 더 알게 된다면 나쁠 것도 없다.

베르트가 모차르트를 프로그램으로 하는 연주회가 상젤리제 극장에서 6월 20일 예정되어 있다.

올 여름 프랑스의 페스티벌 프로그램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모차르트의 음악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페스티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모차르트에 관련 서적 출판도 활발한데, 최근 출판되었거나 곧 출판될 예정인 책 가운데는 오페라 「돈 조바니」의 모차르트 자필 악보를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서 펴낸 것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물론 모차르트의 고향이 잘츠부르크와 모차르트가 주로 활동한 비엔나 관련 음악회와 행사들을 빠트릴 수는 없지만, 이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관련 사이트(www.mozart2006.net)에 들어가면 아주 상세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다(필자 역시 이 사이트에서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모차르트 관련 행사 정보를 프린트했다).

쇼스타코비치 탄생 100주년

프랑스는 러시아를 사랑한다. 아니 좀더 정확하게는 프랑스 사람들은 러시아 예술가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정말로 러시아 예술가들에게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

파리에 있는 쇼스타코비치 국제 협회는 지난 1월 16일에 소르본 내의 리슬리극장에서 쇼스타코비치를 프로그램으로 한 연주회를 기획하는 것으로 올해를 시작했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다녔 현악 사중주단이 쇼스타코비치의 현악 사중주곡을 연주했고, 피아니스트 루드밀라 베를린스카야가 쇼스타코비치의 전주곡, Op.34를 연주했다. 이날은 쇼스타코비치와 절친한 친구이기도 했던 미에치슬라프 바인베르크(1919~1996)의 현악 사중주와 피아노를 오중주를 들을 수 있기도 했다. 바인베르크는 쇼스타코비치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을 때에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음악가였다.

비록 파리에서는 모차르트 250주년 만큼의 축제적인 분위기는 갖지 못할지라도 쇼스타코비치에 대한 해석이나 이해에 그만큼 깊이가 더해질 것은 분명하다. 모스





크바의 DSCH 출판사에서 쇼스타코비치의 악보 전집을 150여 권 분량으로 출판할 계획을 발표했다. DSCH 출판사에서 새롭게 출판할 악보집에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출판되지 않았던 쇼스타코비치의 작품이 약 80여 곡 수록될 예정이다. 이 모스크바의 DSCH 출판사의 쇼스타코비치 전집을 프랑스에서는 상 뒤 몽드(Chant du Monde, 세상의 노래) 출판사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피아니스트 필립 앙트르몽과 로라 미콜라가 녹음한 쇼스타코비치의 마지막 교향곡 15번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버전도 쇼스타코비치 애호가들에

게는 아마 흥미로운 소식이 될 것 같다.

이미 지난 해 연말부터 프랑스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들, 예를 들어 쿠르트마주어가 상임지휘자이자 음악감독으로 있는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정명훈이 상임지휘자이자 음악감독으로 있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에서는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을 연주회 프로그램에 넣기 시작했다.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는 지난 해 연말을 시작으로 해서 올 한 해 동안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전곡 연주 일정을 발표한 상태이다. 아울러 쇼스타코비치의 협주곡들과 교향곡 전곡 연주 일정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전곡 연주 일정동안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지휘자로는 쿠르트 마주어를 비롯해, 블라디미르 유로브스키,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가 있다.

유럽 음악계는 사실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으로 온통 떠들썩하다. 그리고 사람들도 모차르트의 분위기에 완전히 휩싸여 있다. 예를 들어 파리 시내에 위치한 음악전문도서관의 음반 대여 코너에 모차르트의 음반들은 거의 항상 대출 중이다. 그리고 올해 초 프랑스에서는 모차르트의 전곡을 박스로 포장한 90유로(약 12만 원 정도)

유럽 음악계는 사실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으로 온통 떠들썩하다. 그리고 사람들도 모차르트의 분위기에 완전히 휩싸여 있다. 예를 들어 파리 시내에 위치한 음악전문도서관의 음반 대여 코너에 모차르트의 음반들은 거의 항상 대출 중이다. 그리고 올해 초 프랑스에서는 모차르트의 전곡을 박스로 포장한 90유로(약 12만 원 정도) 전집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 전집은 날개 달린 것처럼 팔려나가고 있다. 몇 년 전 ‘모차르트 이펙트’의 효과일 런지도 모른다. 마치 아인슈타인이 인류 역사상 가장 지적인 상징물이 된 이후에 그의 웃는 얼굴은 수없이 많은 광고에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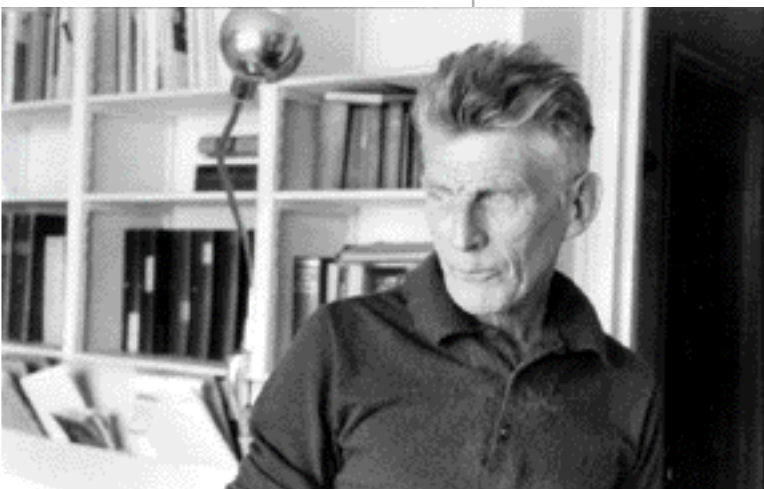
전집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 전집은 날개 달린 것처럼 팔려나가고 있다. 몇 년 전 '모차르트 이펙트'의 효과일런지도 모른다.

마치 아인슈타인이 인류 역사상 가장 지적인 상징물이 된 이후에 그의 웃는 얼굴은 수없이 많은 광고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결 속에서 사람들이 모차르트의 음악을 조금 더 듣고, 모차르트를 조금 더 알게 된다면 나쁠 것도 없다. 다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올해는 마랭 마레 서거 350주년이기도 하고, 슈만 서거 150주년이기도 하다. 사실 지난해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곡가 가운데 한 사람인 앙드레 졸리베

탄생 100주년이기도 했는데, 사실 프랑스에서는 아주 조용하게 지나갔고, 지금은 모차르트 열풍에 쌓여 있을 뿐이다. 모차르트는 파리에 세 차례 왔었지만, 자신이 원했던 오페라 작곡가로 정착하지도 못했고, 어머니의 주검만 파리의 생 위스타슈 공동묘지에 남기고 떠나갔을 뿐이다. 모차르트는 세 번 째 파리에 머물렀을 당시 '파리지안들은 멍청한 당나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비꼬았다.

사무엘 베케트 탄생 100주년

사무엘 베케트(1906~1989)는 모차르트와는 달리 파리와는 좀더 깊은 관계를 맺은 예술가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는 영어와 불어, 서로 다른 두 언어로 글을 썼다. 서로 다른 두 언어로 자유롭게 글을 쓴



사무엘 베케트

작가는 예나 지금이나 찾아보기 힘들다. 『고도를 기다리며』는 당시에도 파리, 런던, 뉴욕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다. 『고도를 기다리며』를 통해 베케트의 명성은 전세계적인 것이 되었고, 1969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베케트는 22살의 젊은 나이에 정착한 도시 파리에서 1989년에 숨을 거두었고, 그는 파리 몽파르나스 공동묘지에 잠들어 있다.

우선 파리는 베케트 탄생 100주년에 걸맞지 않게 조용한 편이다. 물론 작년부터 연극계에서는 「고도를 기다리며」를 무대에 올리고 있고, 대학가를 비롯한 학계에서는 베케트의 문학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세미나들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베케트의 탄생일인 4월 13일에는 파리의 아일랜드 문화원에서 베케트의 문학세계를 집중조명하는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아일랜드 문화원에서는 베케트의 문학세계가 다른 예술장르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소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단지 연극계만이 아닌 영화계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파리에서 매년 봄에 열리는 '시인들의 봄'의 올해 행사에는 아일랜드 태생의 시인들이 다수 참가할 예정이며, 이들이 베케트의 문학세계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시간을 일반인들과 가질 예정이기도 하다. 🌈